

#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 A Life History on the Childhood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The Effects of Children's and Fathers' Perceptions of the Fathering Practice on Children's Sociality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홍기순\*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Univ.

Doctoral Course : Hong, Gi-Sun

---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and understanding of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in Korean society. In-depth personal interview was conducted by a researcher on individual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in childhood. The findings of this qualitativ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 person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in childhood is likely to feel powerless, and think of himself/herself worthless. 2) He/She needs to have sufficient social support and protective networks. 3) A person who experienced parental violence in childhood is to suffer from people's negative behaviors such as social prejudice, preconception, and discrimination. 4) He/She is worried about the cycle of violenc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5) It is necessary for him/her to overcome his/her negative emotions acquired by the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in childhood to have a constructive goal for the future.

---

▲주요어(Key Words) : 아동기 경험(childhood experienc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질적연구(qualitative study)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정해체는 최근 한국 가족의 특성을 대표하는 용어로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적 양상이 되었다. 한 가정이 해체에 이르는 과정과 해체된 이후에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거치면서 가족 구성원은 극심한 갈등을 경험한다. 부부 간 갈등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수반한다. 부부 간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두 사람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 자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경호, 2003; 신혜섭·송미연, 2006; 장덕희, 2001; Fantuzzo et al., 2007; Spilsbury et al., 2007). 아동기 자녀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부갈등과 가

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가정폭력의 대상이 된다(김준호·김선애, 1997; Faller et al., 1981). 특히 갈등과 폭력이 빈번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아동기 자녀는 부모갈등 및 화풀이의 부차적 대상이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부모에 의해 직, 간접적인 폭력과 방임, 유기를 경험하며, 심할 경우 장애 유발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아동학대사례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의 보고(2002)가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자기보호 및 위기대처능력이 거의 없는 아동이 가정폭력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사료된다.

아동기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그것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아동발달 및 사회적 적응에 치명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김재엽,

---

\* 주 저 자 : 홍 기 순(E-mail : garam0719@hanmail.net)

2001). Faller(1997)는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체적 손상과 함께 불신, 친밀한 관계형성능력 손상, 미래 부모역할 수행 능력 손상, 자존감 저하, 광범위한 행동장애 등을 언급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아동기 자녀에게 바람직한 양육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아동이 건강한 성인이 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은 한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파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기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과 가정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IMF 이후인 1990년대 말부터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가정해체의 급증과 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주제와 관련한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관련 연구들의 경향은 피해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원인(김경호·김현옥, 2007; 장수미, 2007)과 실태(김준호·김선애, 1997; 임효진, 2005)를 살펴보고, 가정폭력과 아동발달과의 상관성(김정옥·유도희, 1997; 나은숙·정익중, 2007)을 파악하고,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김경호, 2003; 김재엽·최지현, 2005; 김형모 등, 2007; 박경, 2005; 서경현 등, 2007; 신혜섭·송미연, 2006; 윤혜미, 1997; 이상준, 2006; 조춘범, 2006; 황은수·성영혜, 2006; Dodge et al., 1995; Gibb et al., 2001)을 분석하며, 그것을 토대로 피해아동의 적응과 치료의 효과성을 검토(김세원, 2003; 문선화, 2005; 신민섭 등, 2004; 이재연·윤선화, 2004; 장덕희, 2001; 조미숙, 1999)하는 노력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가해자인 부모의 특성(노충래, 2002; 박은미·이시연, 2007)과 부모치료 프로그램(박현선 등, 2004)과 같은 연구들이 병행되고 있다.

연구의 관점 면에서는 가정폭력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질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아동기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증명하고 다양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복지 분야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성인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설계된 연구는 자칫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위험성이 있고, 그들의 실제 상황과 입장을 왜곡할 여지를 남겨놓는다. 즉,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한 아동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출

발한 연구는 수치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아동기 가정폭력의 생생한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질적연구이다.

실증주의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20세기 말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질적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정도에 불과하다. 연구의 초점을 연구자로부터 참여자 중심으로 옮김으로써 양적연구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내부자적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호학이나 교육학과 같이 주로 인간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질적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사회복지 분야, 그 가운데에서 아동복지 영역에서도 질적연구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연구의 범위와 연구 축적물을 볼 때 발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가정폭력에 대한 질적연구는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을 기술한 김경희(1998)의 연구와 학대받은 아동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해석한 고미선(2004)의 연구 외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기 가정폭력에 대하여 지금까지 주류를 구성해 온 계량적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질적연구는 의미있고 가치있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에 드러난 내부자적 관점을 맥락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술하고 해석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생애사적 연구를 수행하며, 해석적 틀로써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를 의미하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로 표현된다. Straus(1990)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폭력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Allen(1995)은 아동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폭력과 같이 인위적이고 반복적이며 가학적이고 악의적인 대우와 가혹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즉, 가정폭력은 가족기능과 가족구조를 약화시켜 가정해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희생자,

그 가운데에서도 아동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므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크게 정신병리학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그리고 생태학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공계순 등, 2006). 먼저 정신병리학적 관점은 가정폭력이 가해자 개인의 정신적인 결함 및 이상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Burgess, 1979; Finkelhor, 1979). 이 주장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성인이 개인적 성격장애와 맞물려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 준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가정폭력을 열악한 가정환경, 부적절한 양육태도, 낮은 경제적 수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좌절감이나 스트레스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한다(Dollard, 1998; Goode, 1971). 사회문화적 관점은 가정폭력의 원인이 가족이 속한 환경에 있다는 체계이론적 입장을 취한다(Straus, 1973). 즉,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 내 이웃과의 관계,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허용적 분위기, 지역사회의 보편적 가족관 및 아동관이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관계망의 특성이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이후 단기적 외상뿐만 아니라 성장과정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표현하고 반영하는데 현실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의 경험과 요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이 가정폭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귀를 기울임으로써 근본적인 이해와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아동을 연구 중심에 끌어들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는 참여자가 가정폭력의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라는 점, 그리고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응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정폭력에 의한 2차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아동학대'의 개념을 넘어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명시한 규정을 따라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그 시기까지를 아동기로 구분하였음을 밝힌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패러다임

본 연구는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며, 한 개인의 경험을 경험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해한다는 맥락에서 생애사 연구를 지향한다. 생애사(life history)는 개인이 경험한 역사를 의미하며, 구술자의 생활담(lifestory)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술자의 이야기를 기록자가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한 경험, 다시 말해서 실재(reality)로서의 경험 이라기보다는 해석된 경험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조용환, 1999). 생애사 연구는 지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유철인(1998)이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는 현재적 시점은 과거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으며, 과거에 대한 해석은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더 나아가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미래를 전망하게 된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경험된 사건에 대한 의미 창출로 연결된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양적연구의 경우 참여자가 수동적 위치에 머무는 것과는 반대로, 생애사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의 의미로 해석하는 적극적 주체가 된다. 즉 연구 참여자가 자신이 가정폭력이라는 학대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걸어온 발자취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고 깊이있게 이해된 바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연구자가 참여자에 의해 해석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재해석한 바를 서술한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와 참여자는 동등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연구자가 참여자의 경험세계를 함께 여행하며, 경험자의 이야기 속에 담긴 생각과 느낌, 그리고 의미를 상황성과 맥락성을 고려하여 이해한다.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얻은 의미와 통찰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공감과 이해의 간주관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자가 자신의 아동기 때 가정폭력을 어떻게 경험하였으며, 어떠한 의미를 그 경험에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이해를 얻기 위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생애사 연구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생애사 연구 과정에서 얻은 이야기 자료를 연구자가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한 틀로써 van Manen의 현상학적 모티브를 선택하였다.

“현상”(Phenomeno)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즉 “개방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현상학”은 스스로 자체를 드러내는 것을 그 자체로부터 드러나는 그대로 그 자체에서부터 보여지게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두, 2000; 조용환, 1999). 이러한 의미에서 현상학은 어떠한 선입견이나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경험 세계의 근저에 있는 본질을 밝히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최인영·김효근, 2007).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은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Creswell, 2005)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 K씨(가명, 26세)는 2007년 현재 모 대학교 교육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며, 2007년 4월부터 모 기관이 주관하는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관에서 방과후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와 특기교육을 지도하는 보조교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본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대하여 흔쾌히 자신의 사례를 제공할 의지를 보였고, 자신의 이름과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활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이 생애사 연구를 하기에 어린 측면이 있고, 폭력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그러한 측면이 오히려 경험의 실제성을 더욱 생생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라고 판단되었다. 연구 참여자 스스로 가정 내 아동폭력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경험이 보다 의미있고 가치있게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 연구에 탄력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었다.

신경림(2003)은 질적연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대상 선정의 적절성과 충분성의 두 가지 원리를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기 가정폭력을 주제로 자신의 생애와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대상 선정의 적절성을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인 K씨는 출생 이후부터 17세까지 아빠로부터 가정 내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으므로 생애과정상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며, 가정폭력의 지속적인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적절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참여자로부터 생애사를 본격적으로 듣기 이전까지 약 6개월 동안 연구자는 참여자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일을 함께 하면서 참여자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참여자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정폭력 경험과 관련된 생애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였고, 반복 과정에서 더 풍부하고 깊은 설명과 이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해석한 자료는

두 차례에 걸쳐 참여자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고, 약 5회 이상 담당교수의 코멘트와 지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이로써 본 자료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위해 비교적 충분한 자료 검토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충분성의 원리를 만족하였고, 나아가 포화(saturation)의 단계를 충실히 밟았다고 판단된다.

## 3. 자료 수집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기에 앞서 질적연구의 기본적인 전제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에 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 및 포기의 권한, 비밀유지를 위한 방법, 녹음에 대한 설명, 연구 이후에 파생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 참여자로부터 연구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동의와 자발적 참여 의지를 확인한 이후 쌍방이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검토를 거쳤다. 면접 과정과 면접 이후에도 연구자의 감정과 느낌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본 연구는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언어적 진술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생애사 연구를 기본 취지로 삼고 있다. 따라서 자료수집은 기본적으로 비구조적인 심층면접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화가 전제된 면담은 참여자의 관점과 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우면서도 목적적인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Creswell, 2005).

심층면접을 위해 일차적으로는 2007년 10월 중순에 연구 참여자가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복지관을 찾아 하루를 함께 보내면서 참여자의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생애 이야기를 녹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세히 들었다. 이후 11월 초에 연구참여 동의서를 쌍방이 작성하였고, 11월 15일과 12월 12일에 녹음과 함께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비구조화된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 장소는 연구자가 재학중인 학교 내 카페테리아와 시내 음식점에서 이루어졌고,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구자의 관심영역이나 더 구체적인 것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질문을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이야기를 녹음하였고, 면접 이후 녹음된 내용은 모두 전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사된 텍스트를 여러 번 읽으면서 연구의 주제와 흐름을 결정하고, 완성된 초안을 연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 잘못되거나 수정할 부분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추가하거나 보충할 부분은 대상

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 부분은 따로 전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텍스트로 사용된 전사 자료는 A4 용지로 78쪽에 이르는 분량이었으며, 모든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4. 자료 분석 및 해석

생애사 연구의 분석과정은 생애사를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주관적 의미 세계를 연구자가 다시 재해석하는 '해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한경혜, 2004). 즉 생애사 해석은 한 사람의 삶을 그 전체적인 의미연결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이만영·김수연, 1995). 생애사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해석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경험되며 어떤 지향적인 의미로 변한다. 현재에 새롭게 해석되고 의미부여된 과거 경험은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상으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의 가치는 자료에 대한 분석 및 해석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해석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참여자가 자신의 아동기 가정폭력에 대해 생애사적으로 이야기한 자료를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Hermeneutic Phenomenological Reflection)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은 참여자가 직접 체험한 현상을 자신의 언어로 진술한 것을 분석하여 그가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힐 뿐만 아니라 경험자의 시각에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해석학적 현상학적 접근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성인의 생애사를 분석함으로써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경험자의 시각에서 가정폭력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지향에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Van Manen(1990)은 체험의 반성에 이르는 길잡이로서 생활세계 실존체(existentials)들을 언급하였다. 그에 의하면 생활세계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상황의 상이함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적 생활세계에 편재해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 실존의 기초적 차원을 구성한다. 그는 이 기본적인 생활세계 주제들을 '실존체'로 정의하고, 다시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체험된 몸(lived body),' '체험된 시간(lived time),' '체험된 공간(lived space),' 그리고 '체험된 관계(lived other)'를 의미한다. 체험된 신체, 즉 신체성은 우리가 언제나 세계 속에 신체적으로 존재한다는 현상학적 사실을 가리킨다.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의 반응을 나타낸다. 체험된 시간, 즉 시간성은 시계가 나타내는 시간이나 객관적 시간과는 정반대되는 주관적 시간을 의미한다. 체험된 공간, 즉 공간성은 우리가 느끼는 공간을 말하

는데, 연령과 상황에 따라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체험된 관계, 즉 관계성은 우리가 타자와 공유하는 대인적 공간에서 타자들과 유지하는 체험적 관계이다. 이러한 네 개의 실존체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체험된 세계를 형성한다. 현상학은 이 생활세계, 즉 체험된 세계의 구조를 일상적 상황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대로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van Manen, 1990).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본 연구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모두 전사한 텍스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텍스트 내용을 위의 네 가지 실존체를 기본 축으로 범주화하였다. 각각의 축은 텍스트의 반복적 읽기를 통해 각각 2-3개의 본질적 주제와 하위 주제로 세분화되었다. 이로써 참여자의 생애가 재구조화되었고,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를 통해 각각의 본질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기 가정폭력을 경험한 참여자의 삶을 전체적인 의미연결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이만영·김수연, 1995),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한 참여자의 눈으로, 그리고 그가 살아온 위치에서 그의 삶을 이해하고(유철인, 1998) 참여자의 주관적 세계를 연구자가 다시 심층해석하는 질적연구의 과정을 충실히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일련의 과정은 참여자의 검토와 담당교수, 그리고 동료들의 검토 작업을 거쳐 완성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기술: 생애 요약

K의 생애 과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K는 2007년 현재 26살인 여성이며 모 대학 교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의 아빠<sup>1)</sup>는 경찰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통령 경호원을 지낸 후 경찰로 복귀한 바 있다. 엄마에 대한 의치증에서 발단이 되어 K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믿었고, 그것이 K에 대한 폭력의 주원인이 된다. K가 가정폭력의 대상이 된 것은 그가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이며,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폭력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강해지기 시작한다. 어릴 때부터 또래보다 뛰어나고 성격도 명랑해서 못하는 게 없을 정도였는데, 아빠는 그런 것조차 트집을 잡고 K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가한다.

1) 본래 '아빠'라는 용어보다 '아버지'나 '부친'이 더 적합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참여자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자 하는 질적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참여자가 사용한 호칭 '아빠'를 수정 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표 1> K의 생애 요약

연도 (나이)	1984 (3)	1986 (5)	1988 (7)	1994 (13)	1996 (15)	1997 (16)	1998 (17)	1999 (18)	2000 (19)	2001 (20)	2003 (22)	2004 (23)	2005 (24)	2006 (25)	2007 (26)
사건	대전 으로	아빠 사업	상경 아빠사업	사업실패 대전으로	모, 오빠 상경	상경	가출 김밥집 일	고2중퇴	입사 검정고시	대입포기	아빠 사망	사직 스키장 일	남친 만남	대학 입학	아동학대 예방활동

<표 2> 본질적 주제와 하위 주제

해석 범주	본질적 주제	하위 주제
체험된 공간 (lived space)	1) 존재가 머무는 장소	(1) “너는 내 딸이 아니야” (2) “집이라는 공간이 싫어요” (3) “이름뿐인 엄마”
체험된 신체 (lived body)	2) 몸과 영혼에 새겨지는 상처	(1) 카오스(chaos) (2)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 느 끼기 (3) 저항하기
체험된 시간 (lived time)	3)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1) 삶과 죽음의 시간들 (2) 크로노스의 자취: 이력서 (3) 카이로스를 향하여: 꿈, 목표
체험된 관계 (lived other)	4) 다시 보기, 이해하기	(1) “인생의 등불 같은 사람” (2) 용서한다는 것
미래를 향해	5) 행복으로 나아가기	(1) “제 자식을 낳았을 때” (2)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5살 때 아빠가 경찰직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건설업을 해서 집안이 매우 부유하다가 K가 6학년 때 IMF를 임박해서 아빠의 사업이 실패를 하는 바람에 대전으로 이사를 간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오빠가 학교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계기가 되어 엄마와 오빠는 서울로 가고 아빠와 K 둘만 대전 집에 남겨진다. 먹을 것이 없어 굶거나 차비가 없어 걸어 다니는 것이 일상이고, 학비를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온 가족이 서울에 모여 살게 된다. K는 아빠의 폭력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공부에 전념하고, 더 밝고 명랑한 생활을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결국 아빠의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을 친다.

수원의 삼촌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자신을 싫어한 외숙모의 모함으로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고, 그때부터 학교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시작한다. 낮에는 학교, 밤에는 김밥집 아르바이트로 힘겨운 생활을 하던 중 아빠가 학교에 나타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한다. 그러던 중 김밥집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의 소개로 회계사무소에 입사하고,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많은 돈을 번다. 그 사이 아빠가 돌아가시자 점차 삶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 회사를 그만 둔 뒤 또래가 하는 것을 해보고 싶어서 스키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친구 문제와 삶에 대한 회의로 가장 힘들 때 스키장에서 함께 일하던 현재의 남자친구를 알게 되고, 그를 통해

인생의 반전이 시작된다. 남자친구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고, 잃었던 꿈을 찾기 위해 모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한다. 현재는 아동학대예방기관의 교육강사로, 복지관 방과후학교의 보조교사로, 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2.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해석

질적연구는 Heidegger가 언급한 것처럼 현상적으로 드러난 현존재의 사실을 얼마나 사실로써 전달할 수 있는가에 집중한다. 즉, 이미 드러난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하여 전달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난 현상을 텍스트화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언어로 전달된 사실을 <표 2>와 같이 van Manen이 언급한 실존체의 네 가지 하위 범주를 중심으로 구분하였고, 각 축에 따라 본질적 주제와 하위주제로 분류하였다. 모든 주제들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과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생애사적 흐름에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 체험된 공간: 존재가 머무는 장소

(1) “너는 내 딸이 아니야”

Heidegger는 인간의 실존을 존재와의 본질적이며 필연적

인 관계에서 보았으며 인간 속의 현존재(Dasein) 또는 실존은 곧 그가 맺는 존재와의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관계 그 자체라고 보았다(김종두, 2000). 그는 존재의 삶의 양태를 타의에 의해 움직이는 그릇되고 비본래적인 삶(Uneigentlichkeit)과 '현존재'로서 참되고 본래적인 자신다운 삶(Eigentlichkeit)의 두 가지로 보았으며, 전자를 청산하고 후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현존재의 방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아동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이 결정된다. 즉, 부모가 자녀의 실존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양태에 따라 아동은 자기 존재의 가치와 가능성을 습득해 나간다.

K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 인식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잘못된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의치증이 있던 아빠는 K가 태어나기 전부터 K의 존재가치를 의심하고 부인한다.

“제가 뭔가를 알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빠가 (폭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 딸 아니다. 내가 엄마랑 (전에) 이혼했을 때 다른 남자한테서 생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딸 아니다. 그러니까 키워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내 옆에 있게 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술을 마시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없어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 너는 여기 없어야 한다. 니가 죽든 내가 죽든 해야 한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12.12)

아빠로부터 ‘아빠의 딸’로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K가 아빠의 폭력적 언어와 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아빠를 통해 바라본 이 세상은 자신을 반기고 따뜻하게 품어 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과 고통을 안겨 주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K는 이 세상과 아빠라는 공간의 불청객이다. K는 이러한 자기 존재와 현실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내면에 꼭꼭 감추려고 노력한다.

“아빠한테 학대를 받았을 때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창피했냐면 분명히 나는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모두들 원인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 그게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삶 자체가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숨겨야 한다는 생각? 되게 창피했어요. 나를 심하게 숨겨야 할 만큼.”(12.12)

## (2) “집이라는 공간이 싫어요.”

일반적으로 가정은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모든 것을 받아 주고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이며, 부모의 일상적인 손

길과 생활 속에서 세계를 탐구할 기회를 제공받는 장소이다. 이와 같이 가정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 느낌과 어떤 관계가 있는 매우 특별한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확실한 개인적 성역이며, 우리가 현재 있는 그대로의 우리일 수 있는 공간이다(van Manen, 1990). 그러나 가정이 기본적인 안정과 애정을 공급할 수 없을 때 구성원, 특히 아동은 그곳을 무관심과 억압의 공간이요 숨막히는 곳으로 느낄 수 있다. K에게 있어서 집은 자신이 아빠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공간에 불과하다. 집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캄캄함이며,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시간은 멈추어 있다. 그러므로 집은 들어가거나 머물고 싶지 않은 곳, 싫은 곳, 벗어나고 싶은 곳이다. K가 머무는 집은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다.

“남들은 집이 쉬는 공간, 편안한 공간인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집 앞에서 한숨을 쉬고 들어가요. 저는 지금도 집을 싫어해요. 지금도 집을 싫어해요. 아빠가 없는데도 집이라는 공간이 싫어요. 예전에도 집에 안 들어가려고 밤새도록 술마시고 놀았던 거 같아요. 지금도 집이라는 얘기를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데... 두려운 공간처럼. (얼굴이 벌개진다.) ... 저는 딱 집에 들어서 순간 아빠가 있으면 한숨이 나와요.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나.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가나.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랬던 거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집에서는) 1초가 왜 그렇게 길어?”(12.12)

## (3) “이름뿐인 엄마”

부모는 아이와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이다. 부모와 ‘함께 있다’는 말은 공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다.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을 느끼며 쉴 수 있는 고향이며, 아동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힘이다. 따라서 만일 부모가 자신을 남겨 두고 떠났다거나 자신을 버렸다고 느낀다면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기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van Manen, 1990).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한 사람을 그들의 공간 안에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K는 아빠의 공간 안에서 거부를 경험한다. 아빠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아빠는 결코 K와 정서적 영역을 함께하지 않으려 한다.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버려지거나 홀로 남겨지는 것을 경험할 때 아동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낀다.

“한번은 제가 심하게 대든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이유나 알고 맞자고. 그랬더니 ‘너는 내 딸 아니니까 맞아야 한다’고. 아빠 딸이 아니라고 하면서 평생을 때렸

다면 그만 때리라고 했어요. ... 맞을 당시 기분은 말로 표현 못하죠. 비참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12.12)

아빠로부터 자신이 머물 공간을 발견하지 못한 K는 엄마를 바라본다. K는 엄마를 아빠의 폭력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희망이요 상처난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설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그가 엄마를 통해 확인하고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정신적 지주요 그늘로서의 자리이다. 그러나 엄마는 K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한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K는 극한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지켜 주지 못한 엄마를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고 선언해 버린다. 이로써 엄마는 자신과 함께 학대받는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외면한 미움의 대상이 된다. K가 엄마에 대해 '선을 그었다'고 표현한 것 속에는 엄마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포기했다는 의미와 함께 그 누구로부터도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자기 확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편안하게 머물 공간은 가정도 아니고 엄마의 품도 아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이로써 K는 자기 공간에 대한 미련을 떨어 버리고 '홀로서기'로 방향을 전환한다.

"아빠한테 죽기 직전까지 맞고 한밤중에 깜깜한 발길을 걸어 공중전화까지 가서 서울에 있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데려가면 안돼? 나 좀 살려줘. 아니면 날 죽여줘.' ... 엄마가 데리러 갈게 했는데 그 뒤로 한 달 동안 안 온 거 같아요. ... 엄마를 그때 하루하루 괴롭힘 당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어린 마음에(울음). 그 전까지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밉지 않았는데 엄마가 밉기 시작한 거예요. 막상 엄마가 버리고 간 상태에서. 대전에 남겨놓고 도망을 간 거잖아요. 엄마가 아빠랑 나를 방치해 놓고 오빠랑 서울에 간 다음부터 그 공포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엄마가 밉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엄마를 한 달 동안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중략)...엄마가 (가출해서 삼촌집에 있는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죠. 그때 그 배신감. 중학교 때 날 버리고 안 왔던 그 심정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 엄마는 내 머리 속에서 딱 그었던 것 같아요. 선을. 엄마라는 존재는 내 머리 속에서 엄마가 엄마가 아닌 거죠. 나한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고 나한테 그늘이 되어 주는 엄마가 아니라 이름뿐인 엄마라고 선을 그은 거죠. ... 어릴 때부터 홀로서기만 배웠어요. 왜냐하면 엄마마저도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12.12)

2) 체험된 신체: 몸과 영혼에 새겨지는 상처

(1) 카오스(chaos)<sup>2)</sup>

Van Manen(1990)은 우리의 신체가 어떤 사람의 눈길의 대상이 될 때 자연스러움을 잃거나 존재양상에서 고립된다고 하였다. 비판적인 눈길을 받게 될 때 신체는 어색해지는 동작을 취하며, 감탄하는 눈길을 받게 될 때 신체는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는 행동을 연출한다. Bowlby(1980)는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을 통해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아동의 자아관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아동은 출생과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친밀한 접촉을 통해 애정을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애착은 아동에게 자신과 세상에 대한 믿음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원초적 힘으로 작용한다. 만일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한다면 아동은 자신과 세계를 향한 혼돈의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K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빠를 통해 경험한 신체적 접촉은 부드러운 눈길과 애정 어린 어루만짐과 거리가 멀다. 그가 아빠를 통해 획득한 것은 자신과 삶에 대한 무가치성과 무의미함이다. 아빠를 통해 바라본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은 편안함이나 행복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황야와 같다. 지속되는 폭력은 K로 하여금 서서히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자신과 주변 세계를 모두 부정하도록 이끈다.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이는 삶,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삶은 혼돈과 어두움이 가득 찬 카오스의 상태임이 분명하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루 종일 했죠. 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이 어두웠죠. 당장 앞에 친구가 지나가도 그 친구를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세상을 닫고 살았으니까. 책에서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면 여건이 되어야 하지 그랬죠."(12.12)

K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킨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상황을 철저히 숨기는 것이다. 자신의 현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부끄러운 폭력적 현실과 어두운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웃음

2) 카오스(Xaos)는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의 신이 나타난 존재를 말한다. 즉, 만물발생 이전의 원초상태를 의미하며,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된다. 카오스로부터 땅, 지하, 밤, 어둠의 신이 태어났다. 원뜻은 '입을 벌리다'이며, 이것이 '깜깜한 텅빈 공간'을 의미하게 되었다(두산백과사전, 1999).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카오스로 표현하고 있다. 즉, 창조 전의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 어두움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나타내는 용어로 나타난다(창세기 1:2). 본 연구에서 이 말은 K의 아빠에게서 드러나는 참과 거짓의 이중성, 자애로움과 폭력성의 이중성 속에서 K가 경험하는 혼돈, 그리고 거짓된 아빠의 자아를 만날 때의 공허함 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과 활발함 이면에 크나큰 카오스의 일면, 즉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음을 숨길 수 없다. 이와 같이 자신의 실상과 표상의 차이가 클수록 허전함은 더 깊이 파고들었을 것이다.

“겉으로는 되게 활발했죠. 항상 모든 상황을 리더하는 편이었고 말도 되게 잘 했고 공부도 되게 잘 하는 편이었고. 모든 면에서. 다들 되게 부유한 가정에 되게 화목한 가족 환경에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고 태어난 온실 속의 화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저를 숨겼던 거 같아요.”(12.12)

자신을 숨긴 것은 아빠도 마찬가지다. 아빠 역시 가정을 벗어난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착하고 명랑하고 똑똑하고 너그러운 아빠, 행복하고 부유한 가족인 것처럼 비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에 K는 자신과 아빠에 대해 철저한 이중성을 경험한다. 아빠의 이런 모습은 아빠에 대한 분노, 허탈감, 그리고 미움으로 투영된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아빠를 아는 외부 사람은 제가 아빠한테 맞았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안 믿어요. 밖에서는 완전 호인이죠. 완전 천사표에. 밖에서는 때린다는 티도 안 내고 애처가, 공처가로 행세하고. 천에 없는 아빠예요. 그렇게 착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 아빠 옛날에 같이 일하던 사람도 아빠가 차암 좋은 사람,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남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 할 말 없죠.”(12.12)

## (2)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 느끼기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아동관은 가정과 학교에 속해 있는 아동,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원하는 대로 정한 시간표에 맞춰 잘 수행하는 아동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볼 때, 만일 어른이 정해 놓은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거나 어른에 의해 규정된 어떤 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며 ‘틀린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정과 학교라는 공간에서 벗어난 아동, 그로 인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수행하도록 마련된 시간의 흐름에서 이탈한 아동은 문제가 있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Suransky, 1992). 따라서 가출과 중퇴, 또는 퇴학을 경험한 아동은 이유와 상관없이 문제아, 사고 친 아이, 또는 일탈아동이라는 낙인을 경험한다. K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가 아빠의 폭력적 손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하고, 아빠의 추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퇴를 선택한 불가피한 상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를 바라보는 대부

분의 시선은 가정과 학교로부터 벗어난 것에 초점을 맞춘다. 공부에 대한 열의를 살리기 위해 K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검정고시도 사람들의 편견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된다. 검정고시라는 단어는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음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아빠의 폭력이 가져다 준 삶의 변화는 편견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그것이 주는 불편함은 평생 자신이 안고 가야 할 부담이다.

“집을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가출이잖아요. 아빠가 한 번 학교에 와서 난리를 친 이후에는 모든 애들이 ‘재 가출했다.’ 수군수군. 그리고 ‘남자 때문에 가출했다며?’... 가출, 중퇴, 검정고시 모든 게 문제아의 현상으로만 나타난 거예요. 사고 친 걸로.... 편견이 좀 많았어요.”(12.12)

밖으로 나간 존재에 대해서 안에 있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안과 밖의 경계를 만들곤 한다. 그는 이미 ‘우리’의 경계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다. ‘우리’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그와의 모든 연관성을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K의 가슴에 인생의 낙오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다.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하면 엄마들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만 두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학교를 딱 그만두고 친구네 집에 전화를 했을 때, 친구의 엄마가 ‘앞으론 다시 전화하지 마라.’ 하고는 뚝 끊는 거예요. 엄마 혼자 일방적으로, ‘애가 문제아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대학 가려면 문제아랑 놀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거라서... 그 일로 받은 상처가 완전히 인생의 낙오자처럼 느껴졌던...”(11.15)

주변의 치우친 시선과 태도는 현실의 바다를 헤쳐 가는 데 큰 파도가 된다. 학교에서나 사무실에서 사람들의 편견과 배타적 태도를 만날 때마다 심장은 크게 두근거리고 자신의 신체는 형편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낀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억지로라도 손과 팔을 벌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래서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한다. 하지만 부정적 인식과 편견의 벽은 만만치 않다.

“저는 술을 먹었던 게 술이 맛있거나 좋아서 먹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끼워주지 않았거든요. 어느 누구도 나랑 놀아주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친해져야 하니까. 그래서 곱사리껴 가

지고 가서 친해지려고 어쩔 수 없이 술을 입에 댔던 거예요.”(12.12)

### (3) 저항하기

Durkheim(1952)은 사회가 개인에게 주는 압력이나 긴장,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소외감이 개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낙인이론(강현철·이주일, 2004)은 일탈이나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행해지는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자아의 정체성과 행동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한다. 즉,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받는 부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경험이 누적될 때 도덕적 이탈과 부정적 행위가 촉진된다는 의미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과 배척은 분노의 감정을 심어 놓는다. 그 감정이 신체와 정신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때, 즉 '분노가 끝까지 갈 때' 정신은 해체되고 육체는 통제할 수 없는 파괴력을 보인다. K의 육체는 자해의 방식으로 현실에 저항한다. 이것은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내는 또 다른 언어가 된다. 극한 상황에서 K는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학대와 고통을 스스로 재현해 낸다. 죽음과도 같았던 아픔의 기억이 역으로 죽음과도 같은 현실의 아픔을 잊게 해주는 도구가 되며, 몸과 마음은 고통이 지속되는 시간에 오히려 평안함을 느낀다. 폭력으로 인한 분노와 증오가 고통 속에서 역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모순적 태도가 K의 무의식에 숨어 있었던 것 같다. 어릴 적 아빠가 자신에게 행했던 폭력을 스스로 재현하는 모습을 K는 '미친 짓'이라고 정의한다.

“화나는 게 지나치다 보면, 씹씹거리며 화가 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폭발을 하는 거죠. 제가 폭발을 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자해를 한 거예요. 벽에 머리를 박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박거나 머리를 심하게 맞거나 하면 머리가 멍 하잖아요. 멍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는 편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인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정 안 되면 죽고 싶다는 생각에 차도에 뛰어들고 싶다, 육교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 지하철에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정말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다 보면 정도가 지나쳐서... 그때 추석 때였는데 되게 추웠어요. 주인집이 제 방에만 보일러를 안 넣어 주는 거예요. 옆방에는 히히덕거리며 되게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앉아서 밥도 없죠. 너무 싫은 거예요, 제 삶이. 그래서 진짜 쥐약을 사다 먹은 적이 있어요.”(12.12)

자신을 고통에 밀어 넣은 아빠의 죽음과 함께 자신을

지켜 내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 온 고단함과 허탈함이 일순간에 밀려온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고등학교라도 어떻게든 졸업해 보려고 김밥집에 다녔고, 어린 나이에 회사에서 밤새며 일했던 것들이 아빠의 죽음과 함께 삶의 회의로 반추된다. 삶에 대한 긴장이 확 풀리면서 삶에 대해 지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시간과 마음이 흐르는 대로 자신을 아무런 통제 없이 내맡긴다.

“아빠 죽고 나서 일 년 동안 미친 척 하고 여행도 막 다니고 밤낮으로 술도 마시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사는 삶.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 나를 컨트롤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자제하고 산 게 아니라 그냥. 내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 봤자 똑같은 삶인데.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해 봤자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어느 누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12.12)

### 3) 체험된 시간: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sup>3)</sup>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차원은 개인의 시간적 경관의 지평을 구성한다. 내가 과거에 만난 것은 무엇이든 간에 내 존재에 자취를 남기는 경험들로서 지금 나에게 들러붙어 있다. 그것은 내가 행동하는 방식(희망, 확신, 좌절감 등)이나 내가(부모, 교사, 친구 등에게서) 배워 몸에 밴 몸짓일 수도 있고 내가 사용하는 단어나 나를 나의 과거(가족, 학교, 민족)와 맺어 주는 언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과거가 현재의 압력과 영향 아래에서 변화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van Manen, 1990).

Van Manen의 이해를 그리스인이 시간을 정의하는 방식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크로노스(chronos)의 시간을 산다. 그것을 일상이라고 부른다. 크로노스의 일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의미와 구원의 시간인 카이로스(kairos)를 경험한다. 카이로스는 현재에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시간에 대해 지금 여기(here and now)에서 의미를 부여할 때 느낄 수도 있다. 과거의 시간이 비록 어둡고 고통스러

3) 헬라어는 시간(때)을 '크로노스(chronos)'와 '카이로스(kairos)'로 구분한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고 일련의 불연속적인 우연한 사건을 뜻하고, '카이로스'는 때가 꼭 찬 시간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 감정을 느끼는 순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의미있는 순간으로써, 자신의 존재의미를 느끼는 절대적인 시간이다. 예를 들어 임신부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열 달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생명을 출산한 후의 평온함은 곧 '카이로스'이다(기독교대백과사전, 1996).

왔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재해석하고, 현재와 미래의 시간을 더욱 의미있고 희망적으로 일구어 나가는 결단과 의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 (1) 삶과 죽음의 시간들

K는 엄마와 오빠가 서울로 떠나고 아빠와 단 둘이 대전에 남겨진 시간을 기억하며 “제 삶에 있어서 제일 최악이었죠. 죽음이었죠.”라고 표현한다. 엄마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것이 K에게는 심리적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아빠와 둘이 생활하면서 K는 더욱 강도 높은 폭력을 경험한다. 아침에 아빠의 인기척 소리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K는 하루의 죽음을 생각한다. ‘오늘은 어떻게 지낼까, 오늘은 시간이 또 어떻게 갈까.’ K는 하루의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학교에 있을 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과는 달리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은 1초가 너무 길고 더디다. 시계 초침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빠의 작은 움직임에 촉각이 곤두선다. 하루의 시간은 ‘죽었다’로 시작해서 ‘죽었다’로 마감한다. K의 하루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진행형이었을 것이다. 모든 감각을 아빠에게 고정시킨 채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하나씩 세며 견뎌야 하는 시간 속에서 내일은 보이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이 더딘 만큼 현실의 어두움은 짙어 간다.

“엄마가 오빠랑 서울에 가서 주방 보조를 했는데 한 달에 백만 원을 번거예요. 돈 백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저를 데리러 대전을 못 내려온 거예요. 몇 달 동안 아빠랑 둘이 살면서 아주 그냥 죽음이었죠. 맞고 맞고 또 맞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고 맞고 그렇게 맞는 생활을 했어요....(중략)...진짜 저는 죽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삶의 목적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중학교 때.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서 제가 어른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마만큼 더디게 간 시간들이. 완전 암울한 시기였죠. 되게 우울하고 암울하고 못 먹고...”(12.12)

죽음의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한밤중에 엄마를 찾으며 공중전화에 매달렸던 기억은 아직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애절하게 남아 있다. K가 바라던 것은 악몽 같은 크로노스에서 벗어나 삶과 구원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옮겨가는 것이었다. 그가 원하는 카이로스는 아침에 편안하게 눈을 뜨고 시계의 초침소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시간, 하루가 시간가는 줄 모르게 빠르게 지나가고 내일의 희망과 기대에 부푼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부모님의 자애로운 표정과 부드러운 토래의 재잘거리는 소리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다. 그 나이 토래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 K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카이로스가 된다. ‘데리러 갈게.’

라는 엄마의 음성은 K에게 구원의 약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간과 시각이 언급되지 않은 약속은 기다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K는 곧 올지도 모르는 엄마를 기다리며 또 다시 시계 초침을 바라본다. 기다림의 시간은 아빠가 괴롭히는 시간보다 더 느리고 더디게 느껴진다. 공포와 기다림의 시간은 원망과 분노, 그리고 미움을 남긴다. K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아빠의 폭력이 아니라 엄마의 비현실적인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도 아빠가 저를 신나게 때려놓고 지쳐가지고 또 자요. 저 혼자 열 두 시인가 그랬는데 상가들이 다 불이 꺼져 있고 가로등만 있는, 완전 깜깜한, 제가 겁이 되게 많아요. 근데 발이 있고 깜깜한 데를 무서운 줄도 모르고 걸어서 공중전화까지 간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나 데리러 가면 안돼? 나 좀 살려줘. 아니면 날 죽여줘.’ 그랬어요. 엄마가 데리러 갈게 했는데 그 뒤로 한 달 동안 안 온 거예요”(12.12)

아빠의 폭력은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의 폭력에서 살의를 느낀 순간 K는 슬리퍼를 손에 쥔 채 무작정 집 밖으로 달린다. 이로써 K는 가출의 문을 통과한다. 간신히 아빠와 함께 있던 죽음의 공간과 시간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새롭게 생존을 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하루 하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K에게 그 시간은 삶의 무게만큼 더디고 고단하게 흘러간다.

“자퇴하기 전에 김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김밥집에 밤 11시에 출근을 해서 저는 8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한 두 세 시간 자요. 그리고 나서 교복을 싸들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밤에 밤새도록 일을 하고 아침에 학교 가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움직이니까 못자잖아요. 근데 학교 책상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졸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자는 거예요. ... 일주일 내내 풀(full)로 일했어요.”(12.12)

주위에서 별다른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한 K는 스스로 자신의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고, 학업시간과 아르바이트 시간이 이어지면서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주변 체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 홀로 서야 한다는 강박, 육체적 피곤함, 또래와 다른 삶을 견뎌야 하는 상황들이 K를 더욱 힘겹게 했을 것이다.

### (2) 크로노스의 자취: 이력서

시간은 보이지 않지만 흔적을 남긴다. K의 이력서에는 아빠로 인한 삶의 고통과 치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속에는 맥락이 끊긴 크로노스의 시간과 뒤쳐진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살아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원인과 과정보다는 종이에 드러난 결과만 보고 K의 전부를 판단하곤 한다. 자신의 아픈 과거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K는 또 다시 소외감을 느끼고, 평범하지 않은 자신의 과거가 불편해진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들이 ‘어느 대학 나왔어? 무슨 공부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도 이제 소외되고, 저는 분명히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평범한 집에서 자랐다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도 이렇게 되었잖아요.”(11.15)

K는 자신의 지나온 자취를 ‘평범한 것’과 비교한다. K의 이력서는 평범하지 않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그는 자기 이력에 대해 언급할 때 ‘솔직히’라는 어구를 힘 있게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말 속에서 ‘내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로 원하는 것을 했을 텐데’라는 아쉬움과 미련을 짊어질 수 있다. 더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그 속에 담겨 있다.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제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졸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심하게 놀았거나 심하게 무슨 사고를 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큰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했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 제가 모 대학 교육과를 들어갔고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어서, 보조교사 같은 거는 조건이나 그런 거를 안 따져요. 제가 보조교사로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었었어요. 근데 연락이 한 군데도 안 왔어요. 모 기관에도 이력서를 넣었을 때 불러서 물어보더라고요. 왜 검정고시를 봤냐고. 학교다닐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제가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많이 반대를 했대요, 다른 사람들이.... 가출, 중퇴, 검정고시 모든 게 문제아의 현상으로만 나타난 거예요. 사고 친 걸로. 결코 평범하지는 않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슨 문제는 없었어?’라고 해요.”(12.12)

정규과정을 벗어나 검정고시를 거쳤다는 것이 임시 위주의 경쟁사회에서 또 다른 낙인의 조건이 된다. K의 이력서는 늘 편견과 제약을 수반한다. 이력서를 내미는 상황에서 마치 법정에서 있는 사람처럼 구차한 변론을 늘어놓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력서는 쉽게 기각된다. 이것을 K는 차별이라고 부른다. 난 그들과 같지 않다! 그럴 때마다 아직도 살아 있는 아빠의 폭력이 느껴진다.

“얼마 전에 중학교에서 일탈한 아이들을 위해 구성된 반에서 그 아이들 하고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아이들 마음도 읽어 줌으로써 아이들을 치료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소개로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학교에서 이력서를 요구해서 ... 있는 그대로 이력서를 썼어요. 그랬더니 교감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무슨 사고 쳤어? ... 왜 학교를 그만 두었어? ... 니가 문제가 있어서 니가 맞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도 너를 보호해 주지 않았지.’라고 하는 거예요.”(12.12)

### (3) 카이로스를 향하여: 꿈, 목표

K는 공부를 잘 했고, 공부를 더 잘 하는 게 꿈이었다. 특히 유전공학을 전공해서 아빠와 자신의 유전자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왜냐하면 때릴 때마다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했던 아빠에게 아빠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그것이 아빠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K의 꿈은 복수를 지향하고 있다. 아빠의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아빠의 양심에 날카로운 자극을 가하고, 아빠의 행동에 대해 후회와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K의 궁극적인 꿈이요 목표였다.

“그때는 제가 유전공학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빠한테 유전자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아빠가 저를 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전자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오기, 아니 복수심에서...”(12.12)

검정고시를 거쳐 수능을 보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학에 합격한다. 그러나 꿈은 현실적 벽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꿈을 이루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몇 년에 걸쳐 등록금을 마련한 후에 또 다시 수능을 치른다. 그러나 아빠에 대한 복수의 꿈은 아빠로 인해 물거품이 된다. 수능 시험 도중에 아빠의 죽음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마저도 포기하고, 등록금으로 모아놓은 돈은 고스란히 아빠의 장례비용이 된다. 꿈은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자기 연민과 허무함이 차지한다. 생존을 위해 어렵게 양손에 들고 온 꿈과 의지가 의미를 상실하고 목표 실현이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자 K는 삶의 무장을 다 벗어 버리고 본능이 이끄는 데로 자신을 내맡겨 버린다.

“아빠의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딱 느꼈을 때는 ‘왜 하필, 왜 하필’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 인

생애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가는 날까지 나를 괴롭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불쌍해서 온 게 아니라 원망스러워서. 원망스러워서. 너무 밍잡아요. ... 마지막까지 제가 대학가겠다고 등록금을 천만 원인가를 모아 놓았는데, 아빠가 장례 비용으로. ... 그거를 싹 날리고 갔어요, 아빠가. 완전 원수, 그런 원수가 없죠, 세상에. 아빠가.... (중략)...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희망이 더 없었다고 하나? 나는 대학도 못갈 팔자. 나는 공부도 못 할 팔자. 내 인생에 사사건건 걸림돌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팔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죠. ...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일 년 동안 제가 미친 척 하고 막 살았어요.”(12.12)

K로 하여금 폭력적 현실을 견디게 한 힘은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오기나 복수의 의도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분명한 목적은 현실을 극복하는 통로가 된다. K는 자기 입장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현실을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졌고, 아빠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출구로 그가 선택한 것은 공부였다. 아빠에 대한 저항의 수단이기도 했던 그의 꿈과 목표는 아빠에 대한 분노가 강할수록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아빠가 죽음과 함께 공부에 대한 기회마저 가져가 버리자 삶의 의욕과 희망이 급세 허물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다. 그 감정은 아빠의 존재가 사라진 것에서 왔다기보다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경험한 장애와 좌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K가 다시 자신의 꿈을 되찾는 계기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K에게 처음으로 ‘신뢰’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K의 마음에 쌓여 있던 부정적 정서를 걷어 버리고, K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K의 꿈을 찾아 보여준 사람이 그의 남자친구이다. K의 남자친구는 애정을 바탕으로 K가 아무런 저항이나 수치심 없이 자신의 억눌린 감정들을 다 쏟아내도록 이끌어 준다. 더 나아가 K의 장점과 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깨닫게 해 주고, 다시 한 번 K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꿈을 되찾아 실현하도록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남자친구로 인해 치료와 회복, 그리고 재기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고, 자신 앞에 꿈이 보이자 다시 살아갈 의미와 힘이 되살아난다.

“남자친구가 ‘니 꿈을 찾으라’고 수도 없이 물었어요. ‘네 꿈이 뭐야, 니 목표가 뭐야, 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당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처음에는 ‘죽고 싶어, 농약 먹고 싶어.’하다가 저는 ‘그냥 맘 편하게 죽어라고 공부만 하고 싶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맘 편하게. 아무런 걸림돌 없이 공부만 하고

싶은 게 소원이야.’ 그랬더니 ‘공부해’ 그러더라고요.”(12.12)

이제 K는 복수를 꿈꾸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 공부한다. K의 꿈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고, 꿈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뻗어 있다. “자신과 같은 아이가 없을 때까지” K는 공부하고 실천할 것을 꿈꾼다. 비록 출발선이 너무 멀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끝인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은 다를 것이라는 포부도 크다. K에게 있어서 과거의 크로노스는 지금 이 순간 카이로스로 도약한다. 이제 꿈을 위하여,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는 내일이 이어질 것이다.

“제 친구들은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대학 나온 애들이 놀고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다 못해 뭐라도 할려고 찾아보고, 하다못해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 애들은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 ‘왜 저러지? 꿈이 없어?’”(11.15)

#### 4) 체험된 관계: 다시 보기, 이해하기

##### (1) “인생의 등불 같은 사람”

부모와의 체험적 관계 속에서 아이는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고 안전하다는 기본적인 의식과 신뢰를 경험한다(van Manen, 1990). 그러나 Faller(1997)의 주장대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다른 사람을 믿는 능력이 손상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부모의 폭력이 기본적인 신뢰 형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성장 과정에서 주변의 배타적 시선을 통해 불신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신뢰보다는 불신을 먼저 배웠을 K로 하여금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다 쏟아내고 꿈과 목표를 되찾게 해준 원동력은 남자친구가 보여준 믿음이다. K가 처음으로 경험한 신뢰의 느낌은 그의 삶을 바꿔놓을 정도로 큰 위력을 보여 준다. K는 자신의 과거를 감싸안고 어루만져 주는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세상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자 자신을 아프게 했던 과거도 사랑스러운 의미와 삶의 자산으로 재해석된다. 이제 K는 문제와 일탈의 경력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값진 것을 경험한 사람, 사랑받는 존재,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K는 남자친구를 인생의 등불이라고 표현한다.

“제 아픈 과거가 나한테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는 올해. 내 속에 있는 거를, 검은 막으로 쌓여

있던 거를 밖으로 다 끄집어내고 나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죠. 남자친구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사랑받는 존재, 좋은 존재,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중략)... 남자친구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되게 어두운 향해 길에서 길을 밝혀 준 등불 같은 존재.”(12.12)

이러한 과정을 넘어서자 K의 눈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먼저, 자신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러자 세상의 소중한 것들이 보인다. 이전의 암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보던 세상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K는 이것을 시각의 변화라고 해석하며, 비로소 자신이 세상을 ‘평범하게’ 보기 시작했다고 고백한다. 평범하지 않은 삶으로 인해 세상의 평범함을 볼 수 없었던 시간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K에게 비로소 평범함의 지평이 열린 것이다.

“어느 순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해맑은 아이의 웃음도 보이는 거고 밤하늘의 별도 보이는 거고. 그전에는 여행을 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갑갑해서 간 게 바다였고 갑갑해서 간 게 산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 좋아 보이는 거죠.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던 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아니라 평범하게 보인 거예요. 서서히. ... 이런 식으로 서서히 안개가 걷히듯이. 그 전에는 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세상이 어두웠죠. 나 혼자 세상을 닫고 살았으니까. ... 요즘에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12.12)

가정폭력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온전한 회복은 바로 ‘평범함’의 성취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평범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평범하지 않은 과정과 시간을 견디면서 평범하지 않은 시선과 차별을 경험해 왔다. K도 남들과 ‘같지 않음’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친구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있는 느낌을 확인하자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마침내 평범함을 회복한 K는 자신의 과거와 아픔을 넘어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위로자가 된다.

“제 과거의 기억들이, 제 과거의 아픔들이 전혀 낭비되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아이들의 상처를 내가 알고 보듬어 줄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서 살면서 구체

화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12.12)

## (2) 용서한다는 것

17살에 아빠로부터 도망을 나온 후 아빠와 대면한 것은 K가 23살 때 수능시험을 보다가 연락을 받고 달려간 병원 영안실에서였다. 아빠가 살던 집에서 아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정도로 아빠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죽음을 사이에 두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며 밀고 당겼던 시간이 아빠의 영정 사진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이다. 아빠가 스스로 죽었다는 사실, 자신과의 지난한 싸움에서 먼저 삶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K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된다. K는 아빠의 죽음 속에서 아빠가 받았을 상처의 크기를 발견한다. 아빠를 죽음으로까지 인도한 외로움이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같은 것이고, 아빠가 가지고 있었을 아픔이 자신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아빠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불쌍함과 미안함에게 자리를 내어 주자 아빠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그걸로 저한테는 가장 큰 상처를 안겨 주고 간 거예요. 저한테는 17년 동안 가했던 그 폭력만큼의 상처를 하나 또 얹어 주고 간 거거든요. ... 스스로 죽었다는 게. .. 우리 아빠도 IMF 이후에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살았던 거죠. ... 그때 엄마가 아빠의 폭력을 못 견디다가 저한테 온 상태였어요. 근데 아빠도 외로워서 이제 하루하루 기다렸는데 엄마 핸드폰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음성으로 욕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그러다가 엄마가 도저히 안 받고 올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빠가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봤을 때 그런 것 있잖아요. 추석 때 제가 느꼈던 외로움을 아빠도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쥐약을 먹었을 때 상황을 아빠도 그랬구나 라는 생각에 서서히 용서가 된 거죠” (12.12)

17년 동안 이어진 억압과 폭력의 상처는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림으로써 서서히 아물어 간다. 그와 더불어 K 자신이 아빠의 죽음을 계기로 서서히 가해자인 아빠의 삶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용서와 극복의 전환을 이루게 된다. K는 아빠 역시 자신과 같이 아동기 가정폭력의 희생자였고, 의처증이라는 병을 가졌으며, IMF로 인한 사업의 실패와 좌절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해석이 K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마음을 열게 해 준 기폭제가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했던 아빠에게 자신의 존재성을 귀속시키고, 자신에게 향했을지도 모르는 아빠의 부정적 감정을 상상함으로써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로부터 ‘아빠-딸’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아빠의 죽음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할 만큼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만 피해자가 된 게 아니라 나도 가해자가 되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리적 고통을 이해를 하니까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용서를 못했을지도 몰라요. 일방적으로 계속 상처만 받았다면...(중략)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한편으로는 아빠가 안쓰럽다는 생각을 못했나, 제가 돈을 벌면서 왜 엄마는 옷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사 주었으면서 아빠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다못해 밥 한 끼만 사주었더라도, 옷 한 벌만 사주었더라도... 마음을 풀 수 있게끔 계기를 한번 마련해 줄걸, 아빠랑. 그랬더라면 서로 용서하고 그랬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자존심 센 사람이 그 잘난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때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처참하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야만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게 미안하죠.”(12.12)

K는 자신을 아빠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로 인식함으로써 일방적인 피해의식을 버릴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겪었던 심리적 고통이 아빠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그리고 아빠의 외로움과 고통이 자신의 그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이해하거나 화해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태도를 가해의 일면으로 해석한다. 아빠의 삶 전체와 심리적 아픔을 시대적 맥락에 맞추어 다시 바라보았을 때 이해와 공감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이다. 용서와 화해는 과거를 매듭짓는 것을 뜻한다. 또한 가해자와의 감정적 정리는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 신발끈을 매는 것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용서와 화해는 더 이상 가해자와 함께한 과거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롭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이다.

##### 5) 미래를 향해: 행복으로 나아가기

##### (1) “제 자식을 낳았을 때”

흔히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상상한다. 그러나 K에게 이러한 것들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 행복이라는 것이 K가 쉽게 가지거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실체로 인식된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K에게 행복은 ‘매우 낮은 어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 행복은 언제라도 자신에게 ‘매우 익숙한 그것’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라는 주제가 K와 남자친구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에 주요 이슈가 된다는 점은 이미 그들이 그 과제를 잘 해결해 가면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두 가지가 가장 큰 거 같아요. 결혼하면 뭐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나랑 영원히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 또 애기. 애기를 낳아야 하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애기 안 낳았으면 좋겠어요. 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정작 내가 애기를 낳았을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폭력이 나오게 될까봐. 막연한 마음에...저도 약간의 폭력을 자식한테 가할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이 남자친구도 자기는 폭력을 안 당했지만 가정폭력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그런 사람을 증오했고 싫어하고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11.15)

많은 연구들이(김예성·김득성, 2006; 김주현, 2006; 김형모 등, 2007; 박애경, 2006) 사회학습 이론을 근거로 가정폭력의 세대전수 가능성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 결과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삶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거나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게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K도 그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자신의 경험이 결혼생활과 자녀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역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은 자신의 경험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협성에 대한 인지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부정 정서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발전과 성장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혼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지금의 서로 행복한 감정으로 애기를 낳고 그러면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 아무튼 저는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 이거죠.”(11.15)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K와 목격자인 남자친구는 가정폭력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가정폭력이 이미 할아버지로부터 아빠,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대물림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두 사람이 사랑과 신뢰를 밑바탕으로 가정폭력의 연결고리를 끊고 행복한 가정과 모범적인 자녀양육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그의 언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K는 폭력의 세대전수에 대한 염려와 불행에 대한 예기가 물려올 때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끊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상상과 노력으로 불안을 밀어내고 있다.

## (2)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아빠로부터 심하게 맞은 후 거의 한 달을 병원에 있다가 학교에 등교한 날, 담임선생님이 K에게 들려 주신 말씀은 ‘니가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짧은 어구였다. 이 말은 당시 어두움에 꽂 막힌 시간을 살고 있던 K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가슴에 흘러내렸을 것이다. 그것은 K의 존재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었고, K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였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라고, 모든 사람은 다 저를 위해 계획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평생을 좌우했었어요. ... 지금까지도 제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든지 학대를 받았다든지 하는 아이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해 줘요. ‘니가 인생의 주인공이다.’...(중략)... 저는 저한테 매일 주문을 걸었거든요. ‘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난 이 정도에서 무너지려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오기?’(11.15)

K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아픔은 숨겨야 하는 수치가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된다. 이제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자신과 같이 학대받는 아이들,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경험을 아낌없이 활용할 것이며, 그들이 믿고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K는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대견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게 저는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창피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도 생각을 안 하는데 오히려 제삼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 저는 당당하게 말을

하거든요. ...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학대당하는 아이들,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치료를 해주면서 다닐 텐데 그게 왜 창피하냐 ... 저는 저에 대해 되게 높이 평가하거든요. 저는 제가 되게 대견스럽거든요. 제가 살아남았다는 게 대견스러워요.”  
(11.15)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성인의 생애 이야기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을 통하여 아동에게 가정폭력이 어떻게 체험되며 해석되는지에 대한 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연구는 태어나면서부터 17살까지 아빠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온 K(26살, 여)의 생애를 연구자가 재구성함으로써 의미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 경험의 주관적 해석과 맥락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미 없음과 무가치함을 내면화시킨다. 신체적 폭력에 수반되는 언어적 폭력과 방임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 준다. 특히 가정 내 가해자의 폭력적 언어는 아동의 자아상 형성에 치명적 영향을 주며, 부정적 언어는 부정적 자아개념과 낮은 자존감으로 정형화된다. 이러한 아동은 삶의 어려움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의 불행으로 회귀하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쉽게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개인을 돕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 존재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신의 부정적 자아상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폭력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내면화시킨 거짓 자아임을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삶이 행복하게 변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사회적 지지와 보호망이다.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할 때 아동은 공포감을 느낀다. 또한 일생에 가장 큰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어야 할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떨어져 있다는 느낌은 신체적 고통보다 더한 정서적 고통과 불안을 야기한다. 더구나 자신의 상황을 조금도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폭력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릴 때 아동은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을 체득한다. 외롭고 불안한 상황에서 아동은 믿을 만한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한다.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의지할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함께 있음'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머무는 것과 함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힘을 주고 애정 어린 손길을 내미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동이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지 않고 견디며 이기게 하는 버팀목과 같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거나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대상을 돕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아동이 언제라도 달려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쉼터가 되어 주는 것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으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상은 사회 일반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경험한다. 대부분의 양적 연구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정서적인 면이나 대인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김재엽, 2001; Faller, 1997). 그러나 K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폭력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아동이 맞을 짓을 함으로써 폭력을 유발한다기보다는 가해자의 정서적, 사회적 장애에서 촉발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상을 돕기 위한 세 번째 방안은 이들을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대우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생태체계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벗어난 것이 문제나 비정상적이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 이들을 돕는 세 번째 방안이다. 즉, 그들이 느끼는 편견과 부정적 인식의 벽을 허물고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의 후유증은 물론 외부의 낙인적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들을 '상처받은 나, 상처받은 우리'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도 폭력의 가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막연한 두려움은 이성관계와 결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불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정서는 자신을 가해한 부모의 상을 이성 과 연결시키고, 고통스러웠던 가정 내 경험을 자신의 결혼 생활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부적 상상과 신념은 기존의 연구와 매스미디어의 영향에 기초한 면도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가정폭력이 대물림된다는 연구와 인식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 명제로부터 벗어나 그들이 하여금 스스로 신화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이 기대했던 부모상을 실천함으로써 더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자녀양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연구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신뢰하는 태도를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더 가치있는 삶을 설계하고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살아갈 자원이 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폭력 후유증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 내면에 쌓인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고 그들의 꿈과 목표를 찾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내면에 쌓인 것들, 즉 혼란한 자아 개념, 억눌린 감정, 부정적 존재감, 부정적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뢰로운 관계와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K의 남자친구가 치료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K에 대한 공감과 완전한 이해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K가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열게 된 동기가 남자친구에게서 확인한 신뢰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고, 실현 가능한 꿈과 목표를 찾아 노력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삶의 목표와 꿈이 분명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때 현실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적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아동복지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과 성인을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피해 당사자의 경험적 관점을 보다 다양하게 드러내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가족해체와 다양한 가족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가장 큰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그들에 대한 연구도 성인의 외부자적 시각과 편견이 전제된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경험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그것을 통해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직접 체험한 내부자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가정 내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우리 문화의 가정 중심적 속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음성적으로 가정 내 폭력을 허용하고 방임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여 이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은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어야 할 가족비밀이 아니라 공개하고 밝힘으로써 사회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공동대응을 유도함으로써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프로그램 확충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자의 생애를 통해 양적 연구에서 밝힐 수 없는 내적 체험을 질적연구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가치와 의의가 있다. 추후의 보다 발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폭력을 경험한 대상의 폭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가해의 내적 동기와 체험에 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분야에서 양적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참여자의 욕구와 요구가 관련 정책과 실천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질적연구를 더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8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03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5월 30일

#### 【참 고 문 헌】

강현철·이주일(2004). **인권용어 해설집**.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고미선(2004). **아동기 가정폭력의 경험이 부부 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계순 등(2006).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기독교대백과사전(1996). 서울: 기독교문사.

김경호(2003). 가정폭력 경험이 남자 범 죄 청소년의 남성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47-71.

김경호·김현옥(2007). 아동학대 잠재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2), 171-192.

김경희(1998).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1), 70-80.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예성·김득성(2006).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6), 141-153.

김재엽(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연세사회복지연구, 제 6-7권, 1-32.

김재엽·최지현(2005). 여대생의 아동학대경험이 정신건강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2), 27-47.

김정옥·유도희(1997). 부부폭력과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205-220.

김종두(2000). **하이데거에 있어서 존재와 현존재**. 서울: 서광사.

김주현(2006).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폭력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준호·김선애(1997).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6호, 123-143.

김형모 등(200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1), 53-77.

나은숙·정익중(2007). 아동학대 유형별 우울성향, 자기효능감, 학업성취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4), 35-49.

노충래(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3호, 123-154.

두산대백과사전(2002). 서울: 두산동아.

문선화(2005).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패러다임 개발. **사회복지연구**, 14, 29-54.

박경(2005).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31-147.

박애경(2006). **가정폭력의 실태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아내에 대한 폭력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선 등(2004). 아동학대 가해부모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아동권리연구**, 8(4), 649-670.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2). **2001년 전국아동**

**학대현황보고서.**

- 서경현·최수동·김익현(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정폭력이 대학생의 연인관계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53-170.
- 신경림(2003). 현상학적 연구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 탐구**, **12(1)**, 49-68.
- 신민섭·오경자·홍강의·김혜숙(2004). 가정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11-636.
- 신혜섭·송미연(2006). 부적응행동과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 초기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1(1)**, 23-38.
- 유철인(1998).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 **7(1)**, 186-195.
- 윤혜미(1997).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아동의 부모자녀 관계 지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제5호, 95-120.
- 이만영·김수연(1995). 생애사(life story) 해석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1)**, 85-116.
- 이상준(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과 학업적 탄력성. **청소년학연구**, **13(1)**, 137-163.
- 이재연·윤선화(2004).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탐색. **아동권리연구**, **8(2)**, 235-250.
- 이혜경(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임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효진(2006). 빈곤 조손가정의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덕희(2004). 가정폭력 경험 특성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65-91.
- 장덕희(2001). 가정폭력 경험 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수미(2007). 가정폭력상담기관과 알코올치료기관 남성클라이언트의 폭력행동 및 음주 특성. **한국가족복지학**, 제20권, 191-222.
- 조미숙(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4호, 295-326.
- 조용환(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춘범(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5-2)**, 1-52.
- 최인영·김효근(2007). 의무적 지식 올리기에서 지식 나눔으로: 1사 조직 구성원들의 학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 **경영학 연구**, **36(3)**, 623-655.
- 한경혜(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노년학 연구**, **24(4)**, 87-106.
- 황은수·성영혜(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자기인식정서와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9(3)**, 67-84.
- Allen, J. G.(1995). *Coping with trauma: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Burgess, R. L.(1979). Project interact: a study of patterns of interaction in abusive, neglectful and control families. *Child Abuse and Neglect*, **3**, 781-791.
- Creswell, J. W.(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2006). **질적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Dodge, K. A. & Pettit, G. S. & Bates, J. E. & Valente, E.(1995).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atterns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early physical abuse on lat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632-643.
- Dollard, J. L.(1998). *Frustration and aggression*. London: Routledge.
- Durkheim, E.(1952).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Spaulding, J. A. & Simpson, G. (Tran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Faller, K. C.(1997). *Child abuse: a form of family violence*. **한국아동복지학회 제8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50-173.
- Faller, K. C. & Ziefert, M.(1981). *Caus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n Faller, K. C.(Ed.). *Social work with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N.Y.: The Free Press.
- Fantuzzo & Fusco, J. & Rachel(2007). Domestic violence and children's presence: a population-based study of law enforcement surveillance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22, Issue 10, 331-340.
- Finkelhor, D.(1979). *Sexually victimized children*. N.Y.: The Free Press.
- Gibb, B. E. & Alloy, L. B. & Abraham, L. Y. & Rose, D. T. & Whitehouse, W. G. & Donovan, P. & Hogan, M. E. & Cronholm, J. & Tierney, S.(2001). History of Children Maltreatment, Negative Cognitive Style and Episodes of Depression in Adulthood.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 425-446.
- Goode, W. J.(1971). The family in New Jerse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3), 624-636.

- Spilsbury & Belliston, J. & Lara(2007). Clinically significant trauma symptoms and behavioral problems in a community-based sample of children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22, Issue 13, 487-499.
- Straus, M. A.(1973). 김병주 역(2002). *한국의 가정폭력-실상과 국가 개입*. 서울: 백산자료원.
- Straus, M. A.(1990). Measuring inter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CT) scale. In Straus, M. A. and Gelles, R. J.(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29-47. New Brunswick, N.J.: Transition Publishing.
- Suransky, V. P.(1992). *The Erosion of Childhood*. 윤종희 · 이재연 역(2004). *아동기의 실종*. 서울: 교보문고.
- Van Manen, M.(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신경림 · 안규남 역(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 서울: 동녘.